

June of Pangasinan

필리핀팀의 6월 이야기

라운아띠11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6월 보고서

Miranda Min 백수민

Antonio Tony 김태수

Jose Joshua 김민재

Gregoria Daisy 장수진

Soledad Sole 김슬이





DumpSite

덤프사이트

첫번째.

6월 개학, Atti Klase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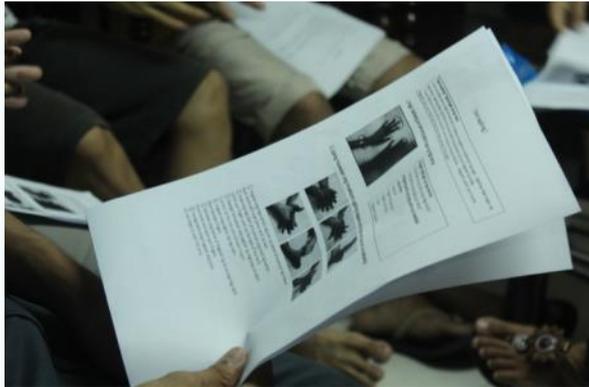
Dumpsite에서의 6월은 마무리하는 한 달이었다. 6월 첫째 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면서 Atti class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Art class를 운영하였다. 동시에 '솔이'는 Dumpsite의 커뮤니티 안에서 주민들과 청년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두번째.

6.16. Thanksgiving gift / 보건위생교육

6월 12일에는 Dumpsite 주민들을 대상으로 Thanksgiving gift 전달 및 보건위생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16일로 연기 되었고, 따라서 12일에는 팡가시난 YMCA 장학생과 Volunteer을 대상으로 Dumpsite에서 진행될 보건 위생교육 사전 실시 및, Gift package를 진행 하였다.



두번째.

6.16. Thanksgiving gift / 보건위생교육

16일에는 수진, 민재, 솔이, Rolly, Ladylyn과 수민, 태수, Marlou, Alen 두 팀으로 나누어 오른쪽 마을과 왼쪽 마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Thanksgiving gift 전달과 보건위생교육을 진행하였다. 라면, 오트밀, 통조림, 마카로니, 손 소독제 등을 담은 Thanksgiving 보따리 선물은 3월부터 지금까지 낯선 라온아띠의 방문을 반겨주고 환영해 준 마을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였고, 이 기회를 더 붙여 기초 보건 위생 교육에 대한 시간 또한 가졌다. Atti class 시작 전 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했던 손 씻기, 상처 치료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아이들 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과 아이들의 상처를 스스로 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 뿐만 아니라 Dumpsite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또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 하는 과정에 있어서 Emer, Rolly, Ladylyn 등 많은 Y staff 및 Volunteer들이 애써 주었고, 다시 한번 Y친구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두번째.

6.16. Thanksgiving gift / 보건위생교육



OFF THE RECORD ●

“보따리 싸던 것 생각만해도 아.. 머리 아파. 보따리 싸면서 y친구들이랑, 아띠들이 마치 누가누가 더 잘 만드나 시합하는 라이벌 같았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었지.”

“Thanksgiving을 계획했던 날마다 자꾸 비가 와서 날짜를 변경해야 했고, 그래서 혹여나 선물을 못 주게 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서 아띠들 사이에서는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들까지 오갔었지.”

세번째.

6.20. Feeding program

6월 20일에는 Dumpsite에서의 마지막 Feeding을 진행했다. 기존의 Feeding program은 Atti class에 참여하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Feeding은 Thanksgiving의 한 부분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과 '아로스칼도'(닭죽)을 함께 나누는 '만남의 장'을 갖고자 하였다. Nipa Hut에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두 팀으로 나누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House to House 방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Feeding 당일, 폭우로 인해 아띠들과 함께 간 Scholar, volunteer들이 쫓딱 다 젖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준비한 닭죽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다.



세번째. 6.20. Feeding program



OFF THE RECORD ●

“ 왜. 우리가. 뭔가. 하려는. 날마다. 비가. 오는. 거야!!!!!!”

“ Feeding program을 하던 날, DumpSite에 처음 방문하는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가 내게 묻더라.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라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처음 DumpSite에 왔을 때의 모습을 새삼 떠올리게 됐어. ‘이 곳도 그들의 삶이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 하면서,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DumpSite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반아들이게 되었음을 깨달았지.”

번외.

6. 16. ~ 6. 30. 주 3회 Dumpsite 방문, 단원 각자 자유롭게 활동 시작

Malasique에서 있을 Homestay가 2주 정도 연기되면서, 매 주 화요일, 금요일에 가던 Dumpsite를 월, 수, 금으로 늘려 자주 방문하였다. 2주 동안은 Dumpsite안에서 라온아띠 각 자가 평소에 하고 싶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Daisy 수진

Dumpsite 마을 어른들과 가까워지기

1~2주. 짧다면 짧은 이 시간에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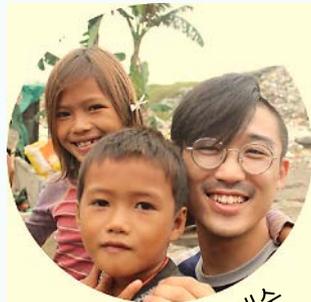
그 동안 class의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마을 어른들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 지는 시간이었거든. 이 사람들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 곳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사람'내음 나는 곳이고 인정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Dumpsite도 결국 똑같은 삶의 현장이자, 한 사람의 일터이더라구. 어저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단한 사람이야.'라고 선불리 판단하고 그 동안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 일수도?!

Dumpsite에 대한 부담감을 덜다

부담이 덜 했어. Dumpsite를 방문 할 때마다 뭔가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난 1~2주 동안은... 뭐랄까? 전보다 조금 더 여유도 생기고, 자유롭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니깐 오히려 더 잘 놀 수 있었지. 한마디로 부담감 없이 재밌게 잘 놀다 왔어.

나는 Dumpsite 사람들에게 동정의 느낌을 주기 싫었어.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친구, 이웃 처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친구 부르듯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 아띠들이 더욱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다면 마을 사람들과 더욱 더 가까워 지겠지?

한편으론 당황스러운 때도 있었어. 그 전에는 인사도 잘 안받고, 그저 흘끗흘끗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살갑게 맞아주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안면을 텅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건지...



TONY태수

번의.

6. 16. ~ 6. 30. 주 3회 Dumpsite 방문, 단원 각자 자유롭게 활동 시작



MIN 수민

수민, 로델리오 선생님님 되다.

지금까지의 Dumpsite에서의 활동은 만족스럽기도 했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어. 왜냐하면 로델리오라는 아이 때문이지. 로델리오는 항상 글씨를 배우고 싶어했지만 아디클라씨에서는 여러명을 다 함께 담당하다 보니깐 로델리오 수준에 맞게 꾸준히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아쉬웠었어.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거야.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Dumpsite에 자주가게 되는데 두렵기도 했어. 왜냐하면 혹여나 더 정들어서 헤어질 때 너무 슬프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거든.

이게 참 모순이지. 이별을 조금 더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도 정을 붙이는 시간이니깐...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 이름 쓸 줄 아는' 로델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

흥, 그래 나 집에 갈거야.

Dumpsite feeding 이후로 안면 없는 사람들과 더 인사하고 친해지게 되었지. Feeding 때 내가 보따리를 건넸었는데, 건네면서 "그동안 맞아줘서 고마워서 드리는 것이예요."라고 이야기 했어. 사실은 그 말 할 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Feeding 이후로 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라고나 할까?

참, 이제는 조금 편한 사이들도 생겼지. 어느 날 카드게임 하는데 께서 좀 알려달라고 보냈더니 두어번 알려주더니, 내가 잘 못하니깐 나보고 "you go home!" 하더라. 조금 서운하기도 하면서 웃음이 나던지. 나도 배친 척 하면서 "알았어요. 나 갈거야!" 하면서 돌아섰더니, 조금은 미안했던지 Dumpsite까지 예스코트 해주더라고. '집에 가'라고 한 순간 덜컥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게 어쩌면 이제야 이곳 사람들도 나를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했어. 어쩌면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거 같아서 좋아. 그래. 이제는 덤프사이트에서 '쓰레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거야.



SOLE 솔이

번외.
6. 16. ~ 6. 30. 주 3회 Dumpsite 방문, 단원 각자 자유롭게 활동 시작



JOSHUA 민재

너무나도 값진 2주간의 시간

2주의 시간동안 월,수,금 덤프사이트를 다니면서 덤프사이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아피콜라세나 상처치움의 의무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옆집 마을을 놀러가는 마음으로 덤프사이트를 2주간 다녔던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2주라는 짧은 시간의 덤프사이트 방문이 지난 3,4개월의 방문보다 더 값진 방문이라고 생각이 돼. 2주, 약 3번의 방문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 안에 직접 들어가 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덤프사이트의 사람들을 '쓰레기 속'의 사람들이 아닌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함'을 생각하고 덤프사이트를 갈 때에는 (적어도 나에게는) 그 것들이 부담이었고, 내가 무언가 주어야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었는데, 홈스테이가 미뤄지면서 생긴 2주간의 방문에서는 그냥 옆집을 드나들듯이 방문 했던 것이라 부담 없이 덤프사이트라는 곳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어.









Pugaro
푸가로

팡팀의 6월 푸가로 이야기

첫번째.

350ppm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Pugaro Farewell

사실상, 5월 29일에 Pugaro에서 진행했던 Summer Program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하지만, 아띠들은 6월 5일 350ppm 행사와 더불어 Pugaro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고, Summer Program의 참여에 대한 감사를 담은 Farewell과 350ppm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Farewell을 준비하면서 아띠들은 처음으로 YMCA Youth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Pugaro Farewell을 통해 서먹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Youth들과 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왜 이제서야 함께 활동하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가졌다.

빵팀의 Pugaro Farewell은 Pugaro의 마을을 돌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편지와 텀블러를 전달하며, 350ppm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Farewell을 준비하면서 아띠들은 사실 집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문 앞에서 퇴짜 맞지 않을지, 마을 주민들이 귀찮아 하지는 않을지, 단칼에 거절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막상 Pugaro를 방문하고, 마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매우 환영 받았다. 되지도 않는 따갈로그어로 소통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어주셨고, 우리의 방문을 즐거워 해주셨다.

우리는 Pugaro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다. Farewell을 통해 Pugaro와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아쉬움도 남았지만 웃으며 우리의 활동을 달을 수 있었던 좋은 마무리였다.



사진은 '350PPM Campagin 이야기'에...



350PPM Campaign

350PPM 캠페인

첫번째.

Campaign 준비과정

1차 계획 CSI LUCAO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 계획

필리핀 평가시난에서 350PPM 캠페인을 계획하기에 앞서 팀원들은 필리핀의 잦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리핀에서 일회용품이 만연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서민들의 ‘작은 소비’문화가 만들어낸 삶의 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병들게 함은 물론이고, 활동지로 다니는 Dumpsite에도 수많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쌓이면서 주민들의 건강 또한 해치고 있음을 눈으로 실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CSI Mall에서 350PPM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큰 마트와 여러 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CSI Mall은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한 번에 많은 대중에게 350PPM 캠페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곳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 350PPM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차 계획 수정 CSI LUCAO에서 PUGARO로 장소 변경, 캠페인 방식 변경

정동민 간사님께 북극곰을 살리자는 게임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않으니 활동지인 Dumpsite를 연결해보고 Dumpsite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Dumpsite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CSI Mall의 광장을 빌리기 위해 하루 종일 다녔으나, 하루 전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장소 때문에 곤란해 하던 중, 활동지인 Pugaro가 섬마을이라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Pugaro에 가서 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는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면 지구뿐만이 아니라 Pugaro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또 다른 활동지인 Dumpsite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었고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첫번째. Campaign 준비과정

최종 준비 과정 텀블러 꾸미기 및 기타 준비 과정

1. 캠페인을 함께 할 Volunteer을 모집하다.

5월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더불어 우리의 코디네이터 Alen과 Jimmy총장님 그리고 대다수의 Y scholar와 volunteer들이 Singapore camp로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서 우리는 Campaign준비에 난항을 겪어야 했다.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 하는데 있어 현지친구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했지만 캠페인 전 주 주말까지도 함께 할 Volunteer들을 모으지 못한 상황.

다행이 Singapore camp post evaluation으로 Y친구들이 모두 사무실에 모인 자리를 빌어 350PPM Campaign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땐 참여를 주저 했던 많은 친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정식적인 '350PPM Campaign Team'이 구성되었다.

아피 한명에 현지 친구들 2~3명으로 조를 구성하였고, 한 조에 10가구씩 방문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350ppm campaign story telling을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Story telling 후에는 캠페인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텀블러를 선물하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각 가구 설문조사를 통한 pugaro database구축, pugaro summer program 편지 전달 또한 함께 계획했다.(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



첫번째. Campaign 준비과정

2. 텀블러 꾸미기

Pugaro Summer program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위한 선물 겸 350ppm campaign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념품으로 준비한 54개의 텀블러!

‘적어도 텀블러를 사용할 때만큼은 350ppm을 떠올릴 수 있도록 텀블러에 캠페인과 관련된 작은 문구를 새기자’ 라는 생각에서 텀블러 꾸미기를 시작하였다.

캠페인 로고를 새긴 스티커를 붙일까?
그냥 깔끔하게 매직으로 Raonatti나 350ppm을 새기는 건 어때?

이렇게 로고를 텀블러에 새기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가던 중. 서랍 속에 잠을 자고 있던 아띠들의 많은 매니큐어들이 떠올랐고 물에 지워지지 않으면서 350ppm 글씨를 새길 수 있는. 더불어 컵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매니큐어를 캠페인 로고를 새길 도구로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떻게 이 수 많은 텀블러에 350ppm로고를 새길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Y의 volunteer. 그리고 scholar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텀블러 꾸미기’를 순식간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후문!



첫번째. Campaign 준비과정

3. 그밖에...

1) 평가시난 팀만의 350PPM presentation 구성



작게는 우리가 활동하는 Pugaro와 Dumpsite.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Pagasinan, Philippines과 350ppm campaign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무국의 feedback으로 Pugaro-Dumpsite-Pangasinan-Philippines-350PPM Campaign을 연계시킨 평가시난 팀만의 350ppm presentation을 구성하였다.

2) 350PPM Brochure 준비



Story telling 후, 350ppm에 대한 정보를 담은 brochure를 각 가정마다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뒷장에는 Pugaro summer program farewell letter를 담아서, 이번 방문을 350PPM Campaign뿐만 아니라 Summer program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그 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편지를 전달할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3) Pugaro Database 조사 - 설문지 구성

두번째. Campaign 당일진행

당일 일정

1. 350 PPM 당일 일정

오전 10시 : YMCA에서 각자 파트너와 준비

오후 12시 20분 : 점심

오후 1시 50분 : 비가 조금 씩 떨어지기 시작.

오후 2시 10분 : 비가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Pugaro로 출발.

오후 2시 35분 : Pugaro로 향하는 배 탑승. 비가 그치기 시작 함.

오후 3시 : Pugaro 도착.

오후 3시 10분 : 각자 팀으로 흩어져서 350 PPM Campaign 시작!!

오후 5시 : 350 PPM Campaign 마무리.

2. 350 PPM 당일 팀 분할



Tony (태수)
with Jeramae, Rolly



Min (수민) with Ervin,
Jeremy, Arnel, Den den



Joshua (민재)
with Ladylyn, Shena



Sole (솔이)
with Heronimo, Marilou,



Daisy (수진) with Nicole,
Jake, Marlou

두번째. Campaign 당일진행

당일 일정

3. 350ppm 당일 진행한 Campaign 내용.

- 각 팀당 10 가구를 맡아 Pugaro를 돌아다니면서 350ppm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Story telling 방식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평가시난 Y volunteer들과 함께 만든 350ppm 텀블러를 감사와 350ppm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로 드렸다.
- Story telling과 더불어 Pugaro Summer Program 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김아띠의 350PPM Campagin

*본 스토리는 5명의 아띠들의 350ppm 이야기를 합쳐 각색한 것으로 약간의 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나는 누구, 지금 여기는 어디?

? Ano ang nasa Mundo?

- Sobrang paggamit ng disposables!
Ex. Plastic bags, plastic cups.
- Pulosyon sa tubig!
Ex. Laundry soap, shampoo.
- Hindi pag-recycle!
- Usok mula sa ibat ibang sasakyan!
- Sobrang paggamit ng elektrisidad!

RoomAtti YMCA OF PANGASINAN

? Kung lumala...

▲ 2014 ▲ if sea level goes up to 60m

Kung magiging patuloy ang pagbabago ng kalikasan, mawawala ang **Dagupan** sa mapa.

RoomAtti YMCA OF PANGASINAN

프린터기가 내 앞에서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350ppm 캠페인 준비를 위해 유인물들을 인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프린터기는 왜 이리 속 터지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건지... 가끔 인쇄물이 잘못 인쇄되어 나오게 되면 이 가게의 모든 가족은 진땀 흘리면서 하나하나 다시 인쇄해주셨다. 갑자기 아주머니가 물어본다.

“도대체 이렇게 많이 뽑는 인쇄물의 정체가 뭐예요?”

나는 이 질문을 계기로 350ppm 캠페인을 여기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350pp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땀 비벌 비벌 흘리면서 프린터기와 씨름하고 계시는 이 가게의 가족들 앞에서, 그냥 기다리기 무릎한 참에 아주머니의 질문의 답도 할 겸, 내일 하게 될 350ppm 연습도 할 겸 열심히 설명했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작업을 하시면서도 서투른 땡가시안어로 설명하는 나를 배려하시며 잘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감사했다.

열심히 프린트되고 있는 우리의 유인물. 3개월간 활동을 진행했던 Pugaro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Summer Program을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뒷면에는 350ppm 캠페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았다.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닌 땡가시안어로 거의 20장 가까이 되는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이야기해야 하는 내일 나... 잘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끝내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야 프린트가 다 된 듯하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에게 가서 가봐야겠다.

#2 고맙다 말씀해 주신 Jeramae 할머니.



출발 할 때부터 배가 거렸다. 출발하려고 하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팀원들과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이야기하며 발만 동동 거렸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치겠지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다. 솔직히 처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나머지 불안한 마음도 생겼고, 의욕도 한 풀 꺾어버렸다. 그러던 중! Pugaro로 향하는 배를 타니까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너무 너무 다행이었다. 비가 와서 걱정이었는데, 도리어 비가 와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더 활동하기 좋아진 것이다. Pugaro에 도착해서 팀 별로 흠뻑 젖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부터 술술 풀릴 텐데... 우리 팀의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바로 보이는 집에 무작정 인사하며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 혹시 350ppm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왜지 사이비 종교를 전하는 전도사와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며 첫 시작을 용기 내서 해보았다. 다행히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를 맞아주신 할머니의 성함은 Jeramae. 의자도 가져다주시고,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라며 내가 가지고 온 스케치북을 보시며 경청해 주셨다. 외국인이지 자기 나라말을 서툴게 써가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웃겼을까? Pugaro 바닷가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며 설명을 들으실 때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설명을 경청해주셨다. Bonuan의 덤프사이트가 Pugaro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 할 때는 ‘에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다.

서툰 평가시안을 거의 20분가량 혼자 떠들다보니 입술이 아팠다. 내가 잘 설명한 건지, 할머니는 잘 알아들으신 건지 설명이 끝나고 혼자 의문을 가질 때 짬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Salamat po ~ !@#!\$@!'

뒤의 평가시안 어느 못 알아들었지만 현지 친구가 동역해준 내용에 의하면 이런 설명을 듣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여기 주민들이 모두 설명을 들어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처음에 비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던 내 마음이 할머니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았다. 할머니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좀 더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다음 집을 향해 걸을 수 있었다.

#3 Hey~ You are the Good teacher!

4번째 집까지 다 돌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 다른 골목을 찾아가는 길에 Jeramae 할머니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짐아띠~!!! Saan kayo gaalin?"

내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시면서 어디 갔다 오는 길이나며 너무나 친근하게 물어보시는 할머니.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로만 대상을 한정 시켰던 것일까? 지금에서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참 아쉬우기도 하지만 이런 것 역시 하나의 과정 중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다가가기 더욱 친근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Pugaro의 주민들. 만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갑게 이름을 불러주며 반겨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하게 된 집은 Rolly 아저씨의 집이었다. 무뚝뚝하고 뭔가 험악(?)해보이는 인상의 아저씨. 어디 한 번 설명해 보라는 식의 표정으로 의자를 무표정으로 가져다주고 앉아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긴장 되었다.

4번, 5번 정도 평가시안으로 열심히 혼자 떠들다보니 이제 내 입이 조금 적음이 된 듯하다. 계속 무표정으로 일관하시던 아저씨께서도 역시 푸가로의 쓰레기사진들을 보시고 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다. 이야기를 마무리 하자 아저씨가 대답 'Hey! You are the Good teacher!' 라고 하시면서 엄지를 치켜세워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350ppm 캠페인을 계획하면서 직접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 것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단지 '직접 방문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4 350ppm 캠페인 안녕, 고마워 pugaro

Pugaro를 거닐며 종종 Summer Program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 350ppm 캠페인을 알리러 갔는데 예전부터 머그컵에다가 음료를 마시는 Ladylyn을 만났던 기억, 350ppm 캠페인 실천 사항을 잘 지키자고 함께 하이파이브 하며 주민들과 인사했던 기억, 나누어준 텀블러를 보면서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자 아티스트냐고 놀라시며 물으셨던 아주머니에 대한 기억 등등...

350ppm 캠페인을 하러 Pugaro로 갔는데, 캠페인을 한 것 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웃고, 사람들과 놀다온 것 같은 기분이야. 무언가 크게, 거대하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닌, 소소하게 우리가 매주 찾아갔던 곳에서 사람들을 한명, 한명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팡가시안팀의 350ppm 캠페인. Pugaro에서 우리가 전달했던 내용들이 작은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김아띠의 일기 끝!





2014 **350PPM** Campaign
In Pugaro, Pangasinan, Philippines

Friends of Asia **Ra**  **mAtti**



6월의 추억

기타등등 잡다한 이야기들

팡팀의 6월의 추억 이야기

첫번째.

6.14~6.15 Evaluation in Baguio

홈스테이를 가기 전, 스텝들과 Baguio로 떠났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라온아띠의 활동을 평가하고 잘 달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말 그대로 관광이 아닌 평가를 위한, 마무리 휴식이었다. Pugaro와 Dumpsite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자 소개하면서 Dagupan에서의 활동을 잘 달을 수 있었고, Alen이 활동을 하면서 바뀐 점이 있는지, Y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한국에 돌아가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등이 쓰여진 종이를 나눠줬다. 그냥 쓰라고 줘서 쓸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 다음날 아침에 함께 활동했던 필리핀 친구들(Rolly, Arnel, Marlou)도 다같이 모였고, Alen이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각자의 진심을 담아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그런 Alen과 Y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고, Rolly, Arnel, Marlou도 Y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본인들이 느낀 소감을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진중하게 듣는 첫 번째 자리였고 그 자리로 인해 생긴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아 쉬웠던 점을 꼬집으면서 서로가 앞으로 잘 나아가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이후 우리에게 대해 더 이해하는 느낌이었다고 조금 더 우리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그 후로 우리의 Feedback을 받아들여 담당 코디네이터가 생겼고,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피드백을 곧바로 받아들여 주었다.

Baguio에서 지난 시간 동안의 라온아띠활동을 잘 달았기 때문에 갑자기 1~2주의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의 활동을 마냥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각자 다른 활동을 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Visit **D'IGOROT PLACE**
AT THE SECOND FLOOR
• IGOROT MADE PRODUCTS



Islands
souvenirs

Baguio City



두번째.

Homestay delay

6월 16일로 예정되어있었던 홈스테이가 두 차례 연기 되었고, 장소 또한 Malasiqui에서, San Jacinto의 Brgy. Sta Cruz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팡팀의 홈스테이는 7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 될 예정이다.

우선은 화가 났었다. 홈스테이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홈스테이가 늦어질 것이라고, 아마 1주나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통보식으로 이야기하는 YMCA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났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마음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구판에서의 삶을 정리했었는데 갑자기 떠나지 못하고 남아야 한다니.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 왔던 팡가시안 YMCA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것을 계기로 폭발했었다.

By. Joshua

Baguio에서의 라온아띠 Dagupan 평가를 마치고 Malasique로 가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홈스테이가 2주 정도 연장되었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순간, 안도의 감정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길 잃은 어린 양'같이 당황스럽기도 했어.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 2주간 무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생각이든게, 무조건 즐겁게, 무조건 후회 없게, 행복하게 마무리해야겠다고 다짐했지. 2주 동안,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보러 가기도 했고, 안 하던 meatless도 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미워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솔직한 감정으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물론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느 때보다 즐거웠고, 편안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던 거 같아. (혹은 괴롭기도!)

By. Sole

Homestay가 1-2주 미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실망스러웠다. 너무나 기다린 시간이기에 실망감도 컸고 막상 그 전날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기도 했다. 이해를 하려고 했다. 다만 그 때의 감정은 YMCA 식구들이 우리에게 대한 정성이 없다고 느껴졌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잘 마무리 되어 우리와 인연이 된 STA. CRUZ 마을 우리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
By. Tony

권태기였다고나 할까? 내게 고운정 미운정(특히 미운정)다 틀어버린 Y식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과 영영 연을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잠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 권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쌓았던 추억을 가슴속 깊이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어서 빨리, 도망치듯 Dagupan을 떠나고 싶었고 Malasiqui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때문에 처음 Homestay가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이미 짐도 다 싸고, 마음의 준비도 다 마친 상태에서 Dagupan에서 주일이나 더 머물러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내게 지난 1~2주간의 시간은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Dumpsite에서 아이들과의 활동에 집중하느라 외면했었던 마을 주민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들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서로의 안위와 행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되었다. 무조건 고개를 돌려버리려고만 했던 Y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팀원들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 갈 수 있었다. 물론 Homestay가 한번이 아닌 두 차례나 미뤄지고, Homestay 장소마저 바뀌게 되면서 YMCA 식구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것도 모두 다 운명이러니 싶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러니!

By. Daisy

16일에 Malasiqui로 떠나기로 해서 14, 15일에 Baguio로 워크숍을 갔다왔다. Dagupan에서의 활동을 잘 단았고 즐겁게 끝냈는데... 15일 밤에 다시 Dagupan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오니 급하게 회의가 있다고 했다. 불길한 마음에 설마 설마 했는데... Jimmy사무총장님이 홈스테이가 1~2주 밀릴 것 같다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이었고 우리는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런지 않게 밀려버리는 스케줄과 이유도 상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니. 우리가 오기 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는데 갑자기 당일에 통보해버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고 짜증났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Dagupan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즐기기로 했다. Dumpsite에서의 마지막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고 내가 예비하는 Rodelio와의 이별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온아피로서 라기보다는 백수민으로서 Rodelio와 하고 싶었던 공부와 활동을 했고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10일정도를 보냈고, 다시 한 번 회의가 잡혔는데 역시나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또한 그 예감이 적중했고 이번에도 2주가량 밀렸고 그마저도 2주안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욱이 Malasiqui가 아닐 확률이 커졌고 스텝들은 다른 도시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계획이 틀어지면서 우리가 Pangasinan YMCA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인 7월 첫 주에 Taiwan International camp가 있었다. 지난번 Singapore International camp의 악몽이 떠올랐기에, 두 번째 밀리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Y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에 정동민 간사님께 전화했다. 이래이래 해서 나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정말 기대했던 활동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밀리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간사님과 통화를 끝마치며 마음을 다시 잘 다잡았고 그렇게 10일정도 지난 후, 7월 2일에 Sta. Cruz로 이사가는 것이 확정 되었다.

By. Min

세번째.

6.12 집들이

홈스테이를 하러 갈 날이 코 앞이다. 항상 Y친구들과 Sir.Nash가 우리 집을 궁금해했고, 홈스테이를 가기 전에 꼭 한 번 오고 싶다고 해서 아띠들이 한국음식을 준비하고 파티를 하기로 했다. 메뉴는 닭볶음탕과 불고기로 정했고, 김 태수단원이 닭볶음탕을, 백 수민단원이 불고기를 하기로 했다. 집들이 당일, 15명이 파티에 참석했고 음식이 정말 맛있이라며 두 번, 세 번씩 먹는 Y사람들 덕분에 요리와 청소를 하면서 힘들었던 보람이 있었다.



네번째.

Meatless

필리핀에서의 meatless.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세 끼 식사에 항상 고기반찬이 따라오기 마련이며, 식사 사이사이에 먹는 meryenda도 식사라고 여겨질 만큼 푸짐하게 간식을 챙겨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피하지 않고는 매일 육식! Malasique에서의 Homestay가 무기한 연장되던 어느 날, '솔이'의 제안으로 Homestay로 떠나기 전까지 매일 'meatless'를 해보자 했는데, '수진'이 함께하기로 하면서 약 2주간 meatless를 실천하였다.



SOLE 솔이

여유를 즐기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있는데, 문득 'meatless'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 거야. 평소에 채소를 즐겨먹지 않는 나는 엄청난 '육식주의자'인데, 하루에 내가 먹는 것들을 생각해보니, 말 그대로 '고기'만 빼고 먹어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 그래서 주로 먹기 시작한 게, 'Bangus' 생선과 'Pancit' 면 요리, 그리고 군것질이 늘어났지.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혼자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지만, Meatless를 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의 남모를 어려움도 조금은 체험할 수 있었고, 내 몸이 조금은 건강해진 거 같아 백뚱하기도 했어.

네번째.

Meatless

6월의 추억

기타등등 잡다한 이야기들



Daisy 수진

350PPM campaign을 위해 사람들에게 Meatless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Meatless를 잊고 살아왔기에... 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 그러던 찰나 솔이 언니의 Meatless제안은 정말 반가웠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 완전한 '채식'이 아닌 말 그대로 'Meat. Less'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게다가 나 홀로가 아닌, 함께 하는 솔이 언니가 있었으니깐 😊 누군가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 Meatless가 시작이라고 생각해. 분명, 언젠가 나의 이런 자발적 불포견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쌓여 '나비효과'를 발휘할 때가 오겠지?!

하지만... 배춧속까지 100% 육식주의자였던 나는, Meatless를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다시 육식으로 돌아와버렸다는 거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Meatless를 하는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

다섯번째.

잠깐의 Homestay (Joshua, Daisy, Tony)



JOSHUA 민재

11박 2일로 잠시 내가 홈스테이를 하게 된 집은 YMCA에 최근 들어 방문을 했던 Emmanuel 이라는 친구의 집이었다. 홈스테이를 가야 했던 당일 Emmanuel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었다. 오후 5시가 넘게 연락도 되지 않고, 약속했던 YMCA에도 오지 않아서 사실 홈스테이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저녁을 솔이누나와 태수형과 먹으러 갔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드디어 연락이 와서 겨우겨우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사실, 홈스테이가 아닌 저녁을 먹고 자고 온 것이라 별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지내고 온다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낸다는 사실은 언제나 새롭고 귀한 경험인 것 같다.

이번 11박 2일간의 Homestay는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갑작스런 Mommy Julie의 Homestay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 '얼떨결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탓에 더욱 더 Homestay를 즐기지 못하였던 것 같다.

맛있었던 롱가니사 파스타, 같은 날 집에 놀러 왔던 YMCA Daycare center 선생님들과 아침 일찍 JUMBA Dance를 추던 기억, 아래층에 사는 Mommy Julie의 조카 귀요미 Joshua와 공룡놀이, 퀘신놀이, 공주놀이등 Playmate로서 각종 놀이를 함께 했던 기억 등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멍 때리며 이런저런 걱정, 슬픈 생각만 하다 와서 그런지 누군가 Homestay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음... 마냥 즐거웠던 기억은 아니었어. 라고 답하고 싶다.



Daisy 수진

다섯번째.

잠깐의 Homestay (Joshua, Daisy, Tony)



TONY태수

공식적인 Homestay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Homestay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YMCA와 라온아피에 양해를 구해 6월 20~22일(금,토,일)에 개인적으로 홈스테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지낸 곳은 나와 같이 잘 미치는 Arnel, 그의 집이었다. 2박 3일 동안 Arnel 가족들과 가까워졌고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필리핀 대부분의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곳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3-4가지나 있었고 마지막 날 그의 이모 집을 방문하여 지방보수작업을 하고 부코 코코넛을 따서 오리지널 맛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의 이모는 그 다음주에 나와 Min을 초대하여 닭까지 잡아 요리해주셨다. 아르넬 조카 메링겅이 보고싶은 날이다. (사진은 페이스북 참고)

여섯번째.

세계인의 축제 World cup! 

2014년 6월, 7월은 세계인의 축제 World Cup이 열리는 축제의 달이다.

빵가시난 아띠들은 어떻게 하면 4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이 World Cup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YMCA의 캡틴 Kuya Jimmy에게 부탁을 했고, YMCA 호텔에서 머물 수 있게 되어 World Cup을 시청할 수 있었다.

Jimmy의 도움 덕분에 16, 20, 27일 총 3일을 거쳐서 한국이 출전한 경기를 모두 시청 할 수 있었다. 새벽 6시, 3시, 4시에 진행되는 경기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졸린 눈 비벼가며 World cup을 시청한 기억은 아마 잊지 못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16강을 진출하지 못했고, 한 번도 이긴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응원을 하면서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축구광팬(27세, 대전광역시)
김토니

“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월드컵을 보다니 그 자체 만으로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1무 2패 예선탈락. 봤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한다. 비록 Min은 함께하진 못했지만 KOREA 티셔츠를 입고 하나가 된 *Joshua, Daisy, Sole, Tony*. **붉은악마들**. “



...nary, Incorporated
For Your Success

...MCA

...nary, Incorporated
KOREA
2014 Super Food
International Super Center

...nary, Incorporated
KOREA
2014 Super Food
International Super Center

...nary, Incorporated
with Penggalan YMC
KOREA
2014 Super Food
International Super Center

...nary, Incorporated
with Penggalan YMC
KOREA
2014 Super Food
International Super Center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팡팀의 6월 개인에세이

TONY

김태수 ANTONIO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TONY

김태수 ANTONIO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변기커버가 없다. 서서 쓴다.

휴지가 없다. 손등으로 닦는다.

펌프로 간다. 팬티만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

나는 이것을 '똥샤워'라고 쓰고 '홈스테이'라 부른다.



SOLE

김솔이 SOLEDAD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SOLE

김솔이 SOLEDAD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지난 4개월 동안 무엇 하나 편하지 않은 게 없었다. 날이 너무 더웠고, 활동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이 너무 싫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참 서툴렀다. 약해 빠진 내 모습을 들리기 싫어 사람들을 더욱 미워했고, 나 자신을 몰아 세웠다. 나보다는 남을 탓했고, 나를 감싼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밀어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들어졌다. 마음 속에 꺾꺾 눌러 놓으면 꼭 잠가서 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터지고야 말았다.

나에게서 튀어 나온 조각들을 하나 둘 줍고 있자니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서툴러서 배울 게 더 많았다.

SOLE

김솔이 SOLEDAD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부대끼면서 사니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
미움도 사랑의 한 과정임을,
감사와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웃을 수 있음을, 행복할 수 있음을.

나와 전혀 연고 없었던 낯선 땅에서 친구를 만들고 가족을 두는 일,
내가 스스로 일군 것보다 부족한 나를 기다려 주고 한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다.

지금 내 곁에 머무르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p.s 글을 마무리 하려니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 끓어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꼬옥 안고 고맙다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MIN

백수민 MIRANDA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6월 한 달은 나에게 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부터 기대하던 홈스테이가 무기한 밀렸고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불만인 Plan B, Plan C.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 않게 계획을 획획 바꾸는 문화(?). 임기응변이라면 임기응변이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던 한 달이었다. 홈스테이뿐만 아니고 모든 계획들이 들쭉날쭉했고 언제 할 것인지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LATER.” 한국에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달이었다. 홈스테이가 밀리면서 3주하고도 조금 더 Dagupan에 머물면서 라온아띠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백수민으로서 dumpsite에서 활동했다. 많은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아띠클라쎄 대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글자를 쓰고 싶어 하는 Rodelio와 3주를 보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자기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가르쳐 주기로 했고, 서툴긴 하지만 Rodelio의 이름과 내 Min이라는 이름을 쓸 줄 알게 되었다.

나를 Korean nanay(한국인 엄마)라며 잘 따르는 RODELIO.:

사실 6월 한 달간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다. 활동을 하다보면 나를 조금 더 잘 따르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나에게서는 그 중 한 명이 Rodelio였다.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불이 났고, Rodelio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큰 화상을 입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상처치료를 해주었고 다행히 큰 감염 없이 잘 아물었다. 더 마음이 쓰여서 치료를 도와주고 매번 체크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6월 2일에 개학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 갔지만 Rodelio는 집에 있길래 왜 안 갔느냐 물으니 글씨를 쓸 줄 몰라서 못 갔다고 큰 누나가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 Rodelio에게 물어보니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필리핀 친구 한 명을 붙잡고 학교를 다니려면 학비랑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고 물었고 공립학교를 다니면 일년에 한화로 20만원정도라고 했다. 공립학교 등록비는 얼마 안 하지만 학교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식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내가 Rodelio를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날부터 몇날 며칠을 고민했다. 1년에 내가 화장품 조금 아껴서 쓰고 커피 조금 덜 마시면, 내가 조금만 걸어 다닌다면 Rodelio가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생각과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직접적인 돈으로 돕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었다. 솔직히 단 한 번도 나는 한국에서 세이프더칠**처럼 얼마씩 후원하며 나의 아들, 딸이라고 편지나 사진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공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야 그렇게 고민하고 공감했다. 혼자 고민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정동민 간사님께 도움을 청했고 고민을 나눴다. 후에 답장을 읽고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선택지 중에 우선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홈스테이 가기 전까지 1:1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지만 수십 번 내렸다 놔다가 했다. 온전히 내 욕심이 같아서... 내려놓으며 Rodelio에게 먼저 물어보고 다시 와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후에 물어보고 하고 싶다는 대답에 사왔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알파벳을 가르쳐주진 못 할 것 같아서 본인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이름쓰기를 놀이를 겸해서 가르쳐 주었고 꽤 성공적이었다. :) [내 이름이 세글자라서 그런지 내 이름부터 성공했지만 :b]

홈스테이를 떠나기 전, 사비로 꼭꼭 주고 싶었던 연필과 지우개, 필통, 책 3권을 잘 넣어서 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다른 방법으로 또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한 달. 이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금해지고 마인드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잘 이별해야 또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부단히 노력중이다. :) 앞으로 한 달 남았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T_T 남은 한 달 동안 잘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재밌게 지내다가 가고 싶다. :)



JOSHUA

김민재 JOSE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JOSHUA

김민재 JOSE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6월은 이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벌써 6월이 지나갔다. 이제 7월이 벌써 되었다는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1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별을 준비해야 하며, 또한 이미 우리가 이별을 많이 경험했다는 말과 같다.

Pugaro에서의 Farewell을 마치고, 이곳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이별을 경험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벌써 Pugaro에서의 기억이 사진을 봐야지만 겨우 기억이 날 정도로 희미해졌으며, 그렇게 많이 그리지도,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 아마 당장 앞의 많은 스캐줄과 일정들, 그리고 여러가지 신경쓸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이리라. Pugaro로 향했던 길, 특히 배를 타고 섬을 향해 들어가던 길을 떠올려보면 얼핏 얼핏 생각나는 얼굴들 덕에 웃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이들과 이별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빨리 지나감이 무섭다.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JOSHUA

김민재 JOSE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산타크루즈로의 홈스테이 일정이 정해지고 난 후로는 덤프사이트와의 이별을 가졌다. 홈스테이가 2주간 늦춰지면서 덤프사이트에서 많은 것을 얻고 갔다. 물론, 2주나 홈스테이가 미루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홈스테이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많이 아쉽고, 화도 났지만 덤프사이트에서 맺은 2주간의 귀한 관계와 경험은 참으로 소중했다. 앞서서도 언급했었지만, 덤프사이트에서의 2주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난 3달간의 덤프사이트의 활동이 의미가 없었고, 소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2주간의 덤프사이트에서의 짧은 시간은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방문한 것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 갔던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라는 인물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난한자, 억눌린자, 소외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예수를 닮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현장에 놓이게 되니 막연하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다. 지난 3달이 그랬고, 그래서 부담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번 2주간의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예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큰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고, 함께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서야 그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JOSHUA

김민재 JOSE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친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번 2주간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며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은 사람이다’ 라는 한 라온아띠 귀국단원의 에세이 내용이 기억이 난다. 쓰레기로 뒤덮여있는 덤프사이트의 환경에서 이젠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다. 쓰레기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관계맺은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고, 그냥 사람사는 곳, 그냥 옆 동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보통 사람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관찰하지 않는다. 이제서야 덤프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을 지나치며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신기해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에 지나다니는 보통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제 딱 1달여 남짓 남았다.

활동을 쉬고 산타크루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게 될 홈스테이.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게 될지,
그보다 먼저 이곳에서 내가 정말 즐겁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 기대된다.
잘 할 수 있겠지? ☺



DAISY

정수진 GREGORIA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DAISY

정수진 GREGORIA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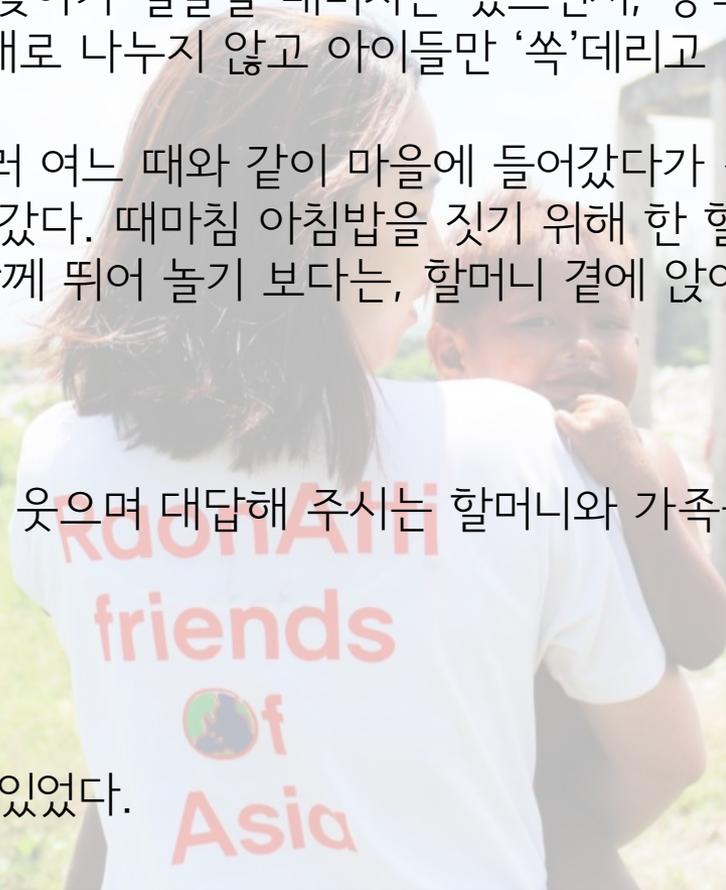
6월 마지막 2주 동안은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 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던 나날들이었다. 그 동안 Atti class를 위해 항상 집집마다 찾아가 얼굴을 내비치곤 했으면서, 정작 아이들의 부모님, 다른 어른들과는 안부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고 아이들만 ‘쓱’데리고 나오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러 여느 때와 같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 갔다. 때마침 아침밥을 짓기 위해 한 할머니가 장작불을 떼고 있었고, 문득.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 보다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장작불 떼는 것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투른 나의 평가시난어에도 활짝 웃으며 대답해 주시는 할머니와 가족들, 장작불 냄새, 빗소리...

너무나도 따스했다.

그렇게. 한참을. 할머니 곁에 앉아있었다.



DAISY

정수진 GREGORIA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

6월 마지막 2주 동안은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 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던 나날들이었다. 그 동안 Atti class를 위해 항상 집집마다 찾아가 얼굴을 내비치곤 했으면서, 정작 아이들의 부모님, 다른 어른들과는 안부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고 아이들만 ‘쓱’데리고 나오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러 여느 때와 같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 갔다. 때마침 아침밥을 짓기 위해 한 할머니가 장작불을 떼고 있었고, 문득.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 보다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장작불 떼는 것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투른 나의 평가시난어에도 활짝 웃으며 대답해 주시는 할머니와 가족들, 장작불 냄새, 빗소리...

너무나도 따스했다.

그렇게. 한참을. 할머니 곁에 앉아있었다.



Salamat po!

최종보고회에서
만나요😊

